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(2013년 2/4분기)

2013. 8. 13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산 업 투 자 조 사 실

해 외 투 자 분 석 팀

목 차

요 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Ⅴ. 기 타	10

< 요약 >

- 2013. 2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2.0% 증가, 전분기 대비 4.9% 증가한 57.8억 달러 시현

【 지역별 】

- 주요 지역 중 아시아, 유럽과 중남미는 증가한 반면, 북미와 대양주는 전년동기 대비 큰폭 감소
 - 아시아, 유럽, 중남미는 각각 47.0%, 22.7%, 21.7%의 증가를 보인 반면, 북미와 대양주 각각 48.6%, 45.8% 대폭 감소
 - ※ 아시아(29.2억 달러), 유럽(7.8억 달러), 북미(7.6억 달러), 중남미(7.1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- 주요 업종인 제조업이 큰 폭 증가를 보여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끄는 가운데, 금융 및 보험업, 도매 및 소매업 증가, 광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감소
 - 제조업은 84.7% 큰 폭 증가한 반면 광업 투자는 54.9% 감소하였으며, 비중은 각각 43.5%, 17.7%임
 - 광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(8.6억 달러)가 전년동기 대비 51.0% 감소
 - ※ 제조업(25.1억 달러), 광업(10.2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5.0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5.0억 달러)

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.3% 감소로 그 비중이 전년동기 79.9%에서 75.7%로 축소

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□ 1억 달러 초과인 대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

- 금분기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38.6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 31.7% 대비 증가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4.6%에서 금분기 73.3%로 소폭 감소

I. 개 요

- 2013. 2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56.7억 달러 대비 2.0% 증가, 전분기 55.1억 달러 대비 4.9% 증가한 57.8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641개에서 8.1% 증가, 전분기의 659개에서 5.2% 증가한 693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47.0%, 22.7% 증가를 보인 반면, 북미와 대양주는 각각 48.6%, 45.8% 감소,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4.7% 증가한 반면, 광업은 54.9% 감소를 기록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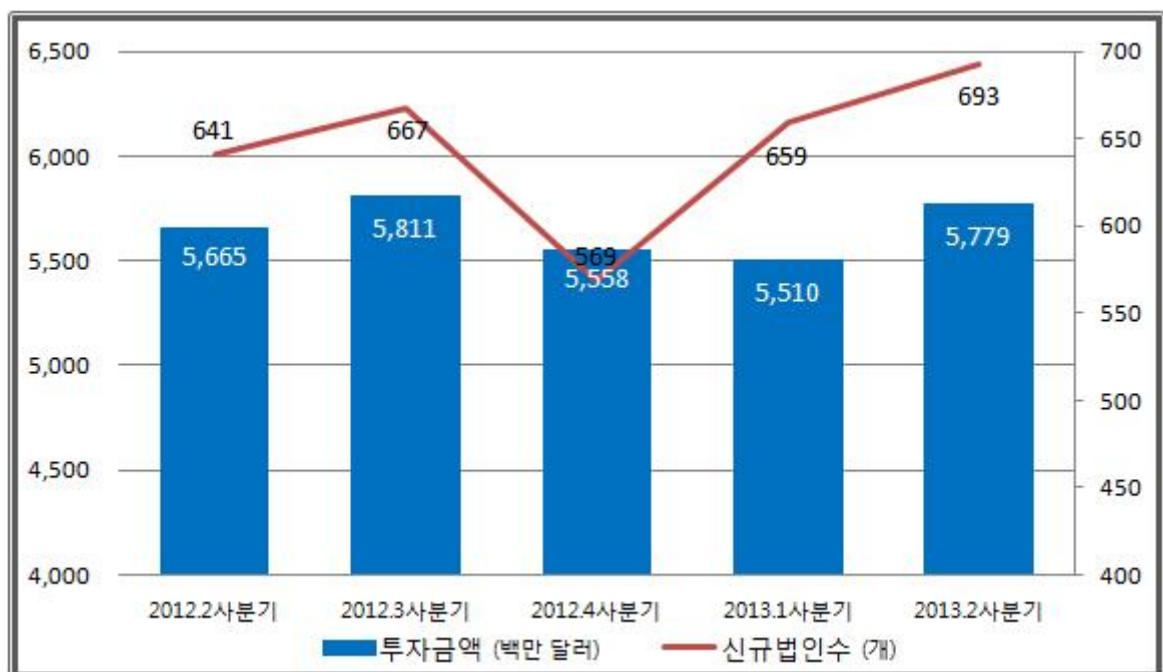
구 분	2011		2012		2012. 2/4		2013. 1/4		2013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 (증가율)	26,491 8.7%	2,760 -4.4%	23,164 -12.6%	2,471 -10.5%	5,665 -9.5%	641 -17.2%	5,510 -10.1%	659 10.9%	5,779 2.0%	693 8.1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(50.5%), 유럽(13.5%), 북미(13.1%), 중남미(12.3%) 순이며, 업종별은 제조업(43.5%), 광업(17.7%), 금융 및 보험업(8.7%), 도매 및 소매업(8.6%) 순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중국(14.9), 미국(7.4), 네덜란드(4.9), 호주(3.5), 필리핀(3.4)
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A사 (6.7), B사 (4.7), C사 (3.3), D사 (3.0), E사 (2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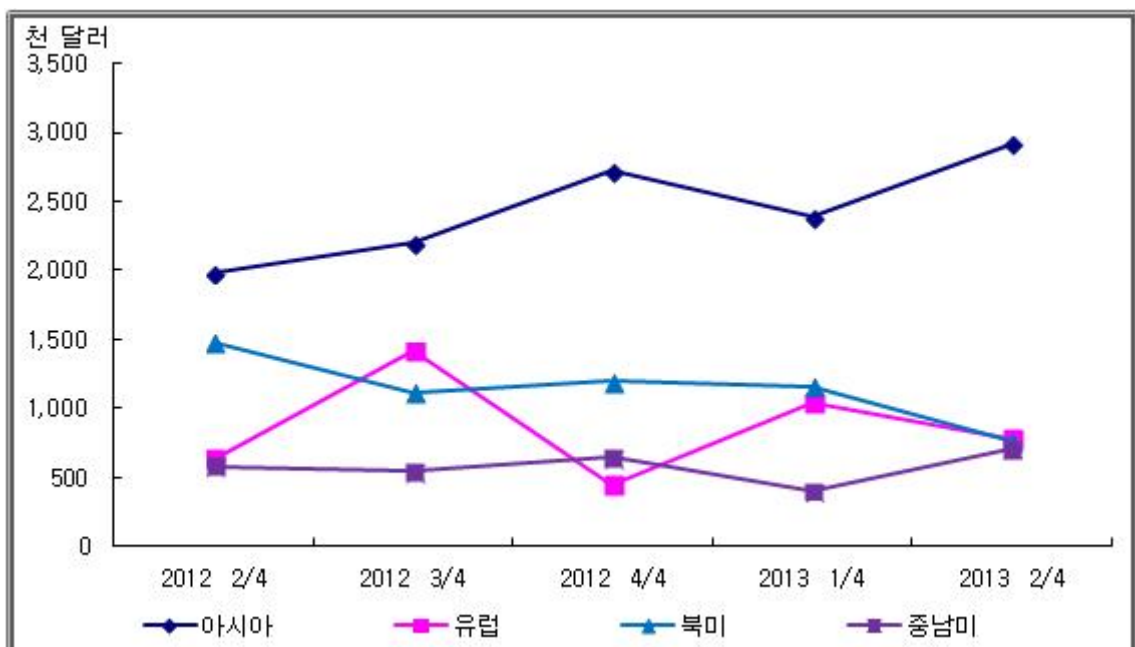
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A사 중국 현지법인 (4.7)
D사 필리핀 현지법인 (3.0)
E사 네덜란드 현지법인 (2.9)
B사 호주 현지법인 1 (1.4)
B사 호주 현지법인 2 (1.4)
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 전년동기 대비 47.0%, 유럽 지역은 22.7% 증가한 반면, 북미는 48.6%의 대폭 감소를 보임

<그림 2>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50.5%, 유럽 13.5%, 북미 13.1% 순이며,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77.2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유럽, 북미가 각각 35.1%, 11.2%, 26.1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72.4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14.9억 달러), 필리핀(3.4억 달러), 유럽은 네덜란드(4.9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7.4억 달러), 중남미는 멕시코(2.4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20.5억 달러)과 도매 및 소매업(1.5억 달러), 유럽은 금융 및 보험업(3.1억 달러)과 도매 및 소매업(1.4억 달러), 북미는 도매 및 소매업(1.7억 달러)과 제조업(1.4억 달러), 중남미는 제조업(2.0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2/4		2013. 1/4		2013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11,088	1,859	10,116	1,677	1,987	419	2,391	447	2,921	467
(비중)	41.9%	67.4%	43.7%	67.9%	35.1%	65.4%	43.4%	67.8%	50.5%	67.4%
(증감율)	10.2%	-3.8%	-8.8%	-9.8%	-37.5%	-17.7%	-12.4%	14.6%	47.0%	11.5%
유럽	3,650	155	3,070	1,677	634	30	1,047	35	778	42
(비중)	13.8%	5.6%	13.3%	67.9%	11.2%	4.7%	19.0%	5.3%	13.5%	6.1%
(증감율)	-40.4%	0.0%	-15.9%	981.9%	8.5%	-33.3%	135.6%	2.9%	22.7%	40.0%
북미	7,266	467	4,449	470	1,478	127	1,162	121	760	119
(비중)	27.4%	16.9%	19.2%	19.0%	26.1%	19.8%	21.1%	18.4%	13.1%	17.2%
(증감율)	57.1%	-15.4%	-38.8%	0.6%	-12.0%	-14.8%	-2.7%	17.5%	-48.6%	-6.3%
중남미	2,329	110	2,532	92	584	29	400	23	710	22
(비중)	8.8%	4.0%	10.9%	3.7%	10.3%	4.5%	7.3%	3.5%	12.3%	3.2%
(증감율)	8.9%	17.0%	8.7%	-16.4%	71.0%	-9.4%	-38.3%	-11.5%	21.7%	-24.1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7.0% 증가한 29.2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11.5% 증가한 467개 기록
- 국가별로는 중국(14.9억 달러, 비중 51.1%), 필리핀(3.4억 달러), 베트남(2.5억 달러), 홍콩(2.0억 달러), 일본(1.8억 달러) 순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10년 36.1%, '11년 33.2%, '12년 32.7%, '12년 4/4분기 34.2%, '13년 1/4분기 32.7%

- 업종별로 제조업(20.5억 달러, 비중 70.2%), 도매 및 소매업(1.5억 달러), 광업과 출판·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각각 1.4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2억 달러) 순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53.3%, '11년 52.3%, '12년 48.0%, '12년 4/4분기 44.0%, '13년 1/4분기 56.9%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4.7억 달러
 - C사의 중국 제조업 투자 : 3.3억 달러
 - D사의 필리핀 제조업 투자 : 3.0억 달러

나. 유럽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2.7% 증가한 7.8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40.0% 증가한 42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네덜란드(4.9억 달러), 영국(1.0억 달러), 노르웨이(0.5억 달러), 러시아(0.4억 달러), 스페인(0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(3.1억 달러, 비중 40.1%), 도매 및 소매업(1.4억 달러, 비중 18.3%), 광업(1.2억 달러), 제조업(1.1억 달러), 운수업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- 유럽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10년 0.2%, '11년 16.3%, '12년 0.8%, '12년 4/4분기 0.0%, '13년 1/4분기 43.5%
 - 유럽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13.3%, '11년 16.7%, '12년 25.9%, '12년 4/4분기 22.9%, '13년 1/4분기 26.2%
- 주요 투자 사업
 - E사의 네덜란드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2.9억 달러
 - A사의 네덜란드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1.2억 달러
 - F사의 노르웨이 제조업 투자 : 0.5억 달러

다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8.6% 감소한 7.6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6.3% 감소한 119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7.4억 달러), 캐나다(0.2억 달러) 순

-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(1.7억 달러, 비중 22.0%), 제조업(1.4억 달러, 비중 18.5%), 광업(1.3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1.3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 - 북미 도매 및 소매업 투자비중 : '10년 9.1%, '11년 15.8%, '12년 8.6%, '12년 4/4분기 4.4%, '13. 1/4분기 21.0%
 - 북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7.9%, '11년 7.5%, '12년 16.7%, '12년 4/4분기 8.3%, '13년 1/4분기 8.7%
- 주요 투자 사업
 - G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1.1억 달러
 - H사의 미국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1.0억 달러
 - I사의 미국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0.5억 달러

라. 중남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1.7% 증가한 7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4.1% 감소한 22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멕시코(2.4억 달러, 비중 34.4%), 브라질(1.9억 달러, 비중 26.9%), 케이만군도(1.1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2.0억 달러, 비중 28.8%), 광업(1.9억 달러) 순
 - 중남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12.8%, '11년 44.8%, '12년 34.8%, '12년 4/4분기 20.1%, '13년 1/4분기 54.3%
- 주요 투자 사업
 - J사의 멕시코 광업 투자 : 1.2억 달러
 - A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0.7억 달러
 - K사의 멕시코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투자 : 0.6억 달러

마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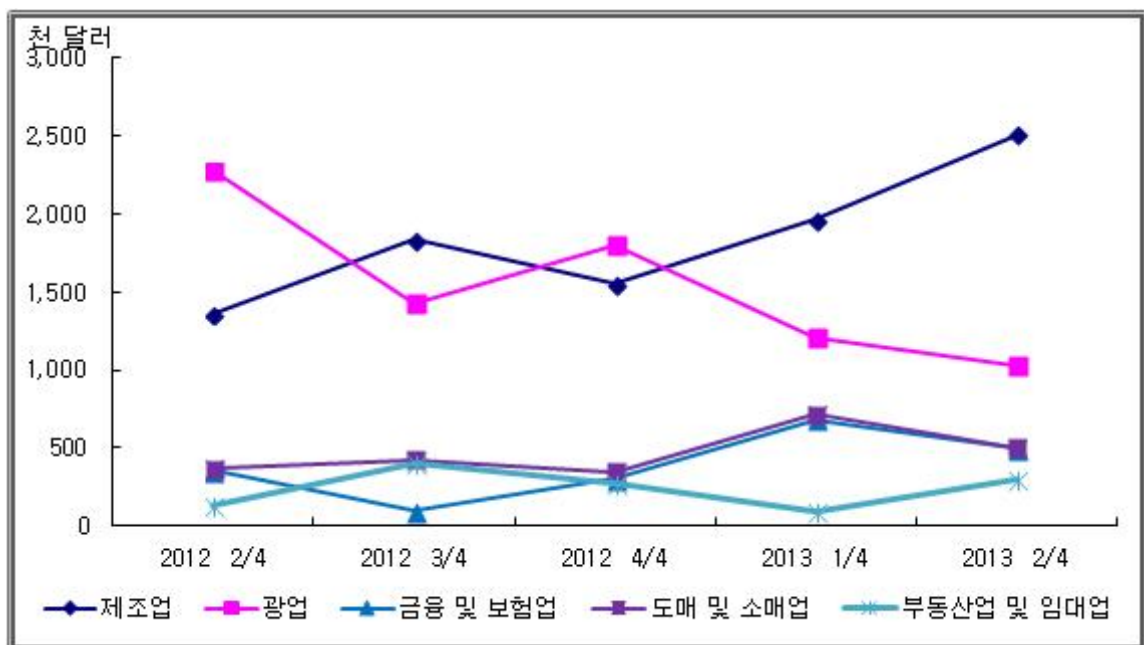
- 전년동기 대비 중동 422.4% 증가 아프리카 -75.2%, 대양주 -45.8%의 감소 시현
- 주요 투자 사업
 - B사의 호주 광업 투자 2건 : 각각 1.4억 달러
 - L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0.5억 달러
 - M사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 투자 : 0.5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전년동기 대비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8.2%, 제조업 84.7%, 금융 및 보험업 42.3%, 도매 및 소매업 37.0% 증가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60.2%, 광업 54.9%, 건설업 36.0%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5.8% 등은 감소

<그림 3>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인 43.5%, 광업 17.7%, 금융 및 보험업 8.7%, 도매 및 소매업 8.6%, 부동산업 및 임대업 5.2% 순
 - 제조업은 중국(13.2억 달러), 필리핀(3.3억 달러), 베트남(2.0억 달러), 브라질(1.7억 달러), 미국(1.4억 달러) 순, 광업은 호주(3.4억 달러), 멕시코(1.2억 달러), 미국(1.2억 달러), 네덜란드(0.8억 달러), 페루(0.5억 달러) 순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8.8%, '11년 30.9%, '12년 31.9%, '12년 4/4분기 28.0%, '13년 1/4분기 35.7%
 - 광업 투자비중 : '10년 30.0%, '11년 28.6%, '12년 30.2%, '12년 4/4분기 32.4%, '13년 1/4분기 21.8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2/4		2013. 1/4		2013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제조업	8,184	1,068	7,384	874	1,360	220	1,967	254	2,512	265
(비중)	30.9%	38.7%	31.9%	35.4%	24.0%	34.3%	35.7%	38.5%	43.5%	38.2%
(증감율)	16.5%	-4.7%	-9.8%	-18.2%	-29.9%	-22.3%	26.6%	33.7%	84.7%	20.5%
광업	7,579	48	6,991	40	2,270	15	1,202	6	1,024	5
(비중)	28.6%	1.7%	30.2%	1.6%	40.1%	2.3%	21.8%	0.9%	17.7%	0.7%
(증감율)	3.5%	-11.1%	-7.8%	-16.7%	72.9%	50.0%	-33.3%	-25.0%	-54.9%	-66.7%
금융 및 보험업	3,602	69	943	42	352	12	684	11	501	12
(비중)	13.6%	2.5%	4.1%	1.7%	6.2%	1.9%	12.4%	1.7%	8.7%	1.7%
(증감율)	10.1%	9.5%	-73.8%	-39.1%	-67.9%	-25.0%	122.2%	-21.4%	42.3%	0.0%
도매 및 소매업	1,890	611	1,516	596	363	166	712	139	497	148
(비중)	7.1%	22.1%	6.5%	24.1%	6.4%	25.9%	12.9%	21.1%	8.6%	21.4%
(증감율)	45.3%	-9.9%	-19.8%	-2.5%	11.3%	-15.3%	109.7%	-6.7%	37.0%	-10.8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제조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25.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4.7% 증가, 신규법인수는 20.5% 증가한 265개 기록
 -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전년동기 대비 각각 495.2%, 711.9% 투자 증가가 주요인
- 국가별로 중국(13.2억 달러, 비중 52.4%), 필리핀(3.3억 달러), 베트남(2.0억 달러), 브라질(1.7억 달러), 미국(1.4억 달러) 순으로, 아시아(20.5억 달러)와 중남미(2.0억 달러) 지역이 각각 81.7%, 8.1%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76.3%, '11년 70.9%, '12년 65.7%, '12년 4/4분기 77.3%, '13년 1/4분기 69.2%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중남미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3.9%, '11년 12.8%, '12년 11.9%, '12년 4/4분기 8.4%, '13년 1/4분기 11.0%
- 투자금액 비중은 43.5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8.2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8.6백만 달러로 업종 평균치(8.3백만 달러)에 가까움
- 세부업종별로는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10.6억 달러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.5억 달러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2.7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1.9억 달러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1.2억 달러)의 순

3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0.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4.9% 감소, 신규법인수는 66.7% 감소한 5개 기록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가 8.6억 달러로 전년동기 17.6억 달러 대비 51.0% 감소
- 국가별로는 호주(3.4억 달러), 멕시코(1.2억 달러), 미국(1.2억 달러), 네덜란드(0.8억 달러) 페루(0.5억 달러),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대양주(3.6억) 및 중남미(1.9억)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35.6%, 19.0% 차지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17.8%, '11년 42.1%, '12년 34.8%, '12년 4/4분기 37.0%, '13년 1/4분기 31.5%
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10년 5.5%, '11년 16.7%, '12년 29.8%, '12년 4/4분기 17.1%, '13년 1/4분기 23.9%
- 신규법인수 비중(0.7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17.7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업종 평균 대비 큼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9.0억 달러) 투자비중이 87.8%, 금속 광업(0.8억 달러)이 7.9% 차지

4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5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7.0% 증가, 신규법인수는 10.8% 감소한 148개 기록
 - 소매업(자동차 제외)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82.2% 증가
- 국가별로는 미국(1.7억 달러), 네덜란드(1.2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33.5%, 24.1%
- 세부업종별로는 소매업(3.0억 달러), 도매 및 상품중개업(2.0억 달러) 순

5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5.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2.3% 증가, 신규법인수는 증감이 없는 10개 기록
 - 투자전문회사의 네덜란드 금융업 투자(2.9억)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
- 지역별로는 유럽(3.1억 달러), 중남미(1.4억 달러), 아시아(0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.3% 감소로 비중이 79.9%에서 75.7%로 감소, 반대로 중소기업 투자는 36.1% 증가하여 비중이 17.0%에서 22.7%로 확대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11		2012		2012. 2/4		2013. 1/4		2013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21,450	373	19,175	331	4,524	86	4,325	103	4,376	91
(비중)	81.0%	13.5%	82.8%	13.4%	82.1%	13.1%	74.8%	14.9%	75.7%	13.1%
(증가율)	5.5%	-6.5%	-10.6%	-11.3%	-12.3%	-18.9%	-6.1%	47.1%	-3.3%	5.8%
중소기업	4,050	1,289	3,485	331	963	275	1,112	330	1,311	333
(비중)	15.3%	46.7%	15.0%	13.4%	17.5%	41.7%	19.2%	47.6%	22.7%	48.1%
(증가율)	13.2%	-2.3%	-13.9%	-74.3%	4.8%	-19.8%	29.7%	32.0%	36.1%	21.1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업의 신규법인수 비중은 13.1%에 불과하나, 신규법인수 대비 투자금액은 대기업(0.5억 달러)이 중소기업(3.9백만 달러) 대비 약 12배

2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19.4억 달러, 비중 44.4%), 광업(10.1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4.1억 달러) 순
 -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24.9%, '11년 27.5%, '12년 28.9%, '12년 4/4분기 23.6%, '13년 1/4분기 37.1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23.5억 달러), 중남미(6.0억 달러), 북미(5.0억 달러) 순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5.4억 달러, 비중 40.9%), 금융 및 보험업(2.9억 달러, 비중 22.4%) 순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10년 50.6%, '11년 52.4%, '12년 48.7%, '12년 4/4분기 50.8%, '13년 1/4분기 29.7%
 - 중소기업의 금융 및 보험업 투자비중 : '09년 3.2%, '10년 9.4%, '11년 1.4%, '12년 4/4분기 1.6%, '13년 1/4분기 41.0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5.1억 달러), 유럽(3.6억 달러) 순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2/4		2013. 1/4		2013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60	2,086	519	1,908	206	525	188	528	198	548
~200만달러 이하	999	356	946	311	320	63	296	67	364	83
~500만달러 이하	1,304	129	1,236	105	363	13	340	25	431	36
~1000만달러 이하	1,419	69	1,525	58	495	12	332	10	392	7
~5000만달러 이하	5,077	82	4,546	63	1,859	22	1,420	21	1,586	14
~1억달러 이하	3,614	15	3,044	11	625	4	592	1	577	3
1억달러 초과	13,516	23	11,348	15	1,797	2	2,341	7	2,231	2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43.9%에서 금분기 37.4%로 감소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31.7%에서 38.6%로 증가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4.6%에서 금분기 73.3%로 소폭 감소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11		2012		2012. 2/4		2013. 1/4		2013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192	14	252	11	66	3	41	3	34	2
10% ~ 50% 미만	2,882	362	2,312	272	765	82	554	73	541	77
50%	609	97	606	95	106	25	86	26	166	21
50% 초과~100% 미만	3,434	234	2,529	196	500	55	672	54	803	60
100%	19,373	2,053	17,465	1,897	4,228	476	4,157	503	4,235	533